

불을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종교, 포로마스터교

글 | 조승연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인류학박사



인류의 종교사에서 커다란 사건 가운데 하나를 꼽으려면 아마 조로아스터교의 출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아시아에서 배화교(拜火敎)라고도 알려진 이 종교는 종교사 만큼이나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우선 조로아스터교의 등장은 진정한 세계 제국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이전의 모든 종교는 민족 종교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패권을 잡게 되면 피지배 민족의 신은 철저히 배척당하거나 파괴되었다. 성경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민족과 그들의 신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교의 경우는 다른 종교들과는 조금 달랐다.

선과 악의 이원론적 세계관, 불의 종교

조로아스터교는 BC 6세기 경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차라투스트라(영어명 : Zoroaster)가 창시했으며, 차라투스트라는 '아후라 마즈다'를 제외한 모든 제의와 숭배를 부정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자신들을 마즈다 예배교(마즈다야스나 : Mazdayasna)라고 부르며, 한자로는 배화교(拜火敎), 중국에서는 현교(祆敎)라고 하여 삼이교(三夷敎, 세 오랑캐의 종교)의 하나로 꼽혔다.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일신교(一神敎)로써 고대 인도-이란 또는 인도-게르만의 공동의 종교적 뿌리에 근원을 둔 신들이나 제령(諸靈)들을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 아래에 두고, 우주를 선과 악의 두 원리로 설명한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세계관에서 우주는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이원론적 관계에 있다.

경전 『아베스타』에 의하면 태초에 앙그라 마이뉴(훗날의 아리만)는 악을 택하고, 스펜타 마이뉴(아후라 마즈다의 성령)는 선을 각각 택하였다. 신봉자들도 생각, 말, 행동에서 어느 것을 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쪽은 다른 한쪽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상호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후라 마즈다의 쌍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선의 천사들이 원래 가졌던 자연종교적·물신숭배적(物神崇拜的) 특성은 약화되고 아후라 마즈다의 뜻대로 움직이는 비주체적 천사로 되어서 각각의 추상적 직능이 이원론과 함께 강조됨으로써 악의 천사들은 주체성을 회복하고 아후라 마즈다와 직접 대결하게 된다.



사진 ● 불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은 두 단계로 되어 있다. 시신은 그들의 장법(葬法)인 풍장(風葬)과 조장(鳥葬)에 의해 독수리의 먹이가 되지만 영혼은 천국의 입구

까지 와서 올라로 믿은 자는 그곳에 있는 다리 위를 안 내받으면서 무사히 건너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거짓으로 믿은 자는 발을 헛디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한편, 조로아스터가 가고 3,000년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 사망한 모든 인간이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행해져 악은 멸망한다. 조로아스터교의 사후 세계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밍스타간'(Hamingstagan)이라는 곳으로 나뉜다. 하밍스타간은 양쪽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 상태를 말하며 혼합된 지역, 예컨대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저울질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사제는 다스투르(Dastur)이다. 불의 사원에서 의식을 집전하는 이는 에르바드(Ervad)로 정화의례를 되풀이하며 청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에르바드는 아베스타를 암송하지만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아베스타의 언어는 이미 사어(死語)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의 사원에서는 일련의 길고 복잡한 의례를 거쳐 정화된 열여섯 개의 불을 합쳐서 만든 불을 신성시한다. 매일 다섯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은 성전 암송과 기도문 암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2 ● 조로아스터교 사제와 꺼지지 않는 불꽃

고대 사산조 페르시아의 위 은화에서는 이러한 조로아스터교에서 숭배하던 찬란한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를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불에 대한 숭배로 인해 고대 동양에서는 '배화교'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 위 은화에도 나타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의 도상은 훗날 다른 종교의 미술사에도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된다.

바로 불꽃을 중심으로 양쪽에 서 있는 사제로 추측되는 보조적 인물의 배치가 그것이다. 불교에서 역시 머리에 휘황찬란한 광배를 두른 빛으로 상징되는 '아미타불'의 양 옆으로 항상 보살이 위치한다. 또한 기독교에서도 역시 위대한 성인의 머리에는 찬란한 광배가 존재하며, 그의 양 옆으로 그의 제자들이나 천사들이 위치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 영향을 끼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오늘날 인도 뭍바이와 이란 야즈드,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유럽 등지에서 15만여 명의 신자들이 교세를 잇고 있다. 이슬람교에 밀려 소수 종교로 퇴락했지만 고대부터 중세까지 조로아스터교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문화사에 미친 영향은 다른 어느

세계 종교에도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 조로아스터에 의해 창시된 이 종교의 가장 큰 종교사적 의미는 전파과정에서 이슬람, 기독교, 불교 등 오늘날 세계 종교의 원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주를 다



사진3 ● 이란 테헤란에서 약 550km 떨어진 아르다칸(Ardakan)외곽에 있는 조로아스터교 '차츱(Chak Chak) 사원'

스리는 유일신 신앙과 선악의 대립 갈등, 구세주가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종말론 등 특유의 교리 체계는 후대 기독교, 이슬람교, 마니교의 주된 뼈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불교 미륵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조로아스터교가 통일적 제국이던 고대 페르시아와 실크로드 문화의 원형을 창출한 사산조 이란왕조의 국교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방대한 제국을 문화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리안족 신화를 바탕으로 다른 민족들의 신화나 신앙과 결합한 보편적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사산조 이래 조로아스터교는 실크로드 교역로를 타고 활발하게 전파되었다.

불을 뛰어 넘으며 새해를 맞이해

이러한 조로아스터교의 전통은 오늘날 이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이란의 새해는 다

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3월 21일 시작되는데, 이는 조로아스터교와 이를 국교로 삼았던 옛 페르시아의 흔적이다. 이란의 새해맞이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이다. 새해 전 이란 전역에서는 다양한 불꽃놀이 행사가 열리고 지역마다

모닥불을 피워 놓고 축제를 벌인다. 모닥불을 뛰어넘는 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으로 불을 신성시하는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이다.

이란인들은 매년 새해가 되기 전의 마지막 화요일 밤에 불 위를 뛰어넘는 행사를 벌이는데, 처흐르산베수리(Chahar Shanbe Suri)라고 한다. 처흐르산베는 수요일, '수리'는 '붉은, 불같은'의 뜻으로 마지막 수요일의 불의 축제인데, 하루 전날인 화요일 밤부터 거리나 광장에 모닥불을 피운다. 이란의 새해는 불과 관련되어 있고, 불의 축제는 고대 노루즈 행사의 서막에 해당한다. 노루즈는 봄의 도래와 자연의 소생을 말한다.

이 행사는 초기 조로아스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마지막 수요일의 전날 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다. 이런 불의 축제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 서역의 소수 민족 축제에도 널리 퍼져 있는 새해 행사 중의 하나다. 이 축제는 한 해의 마지막 화요일 밤 초저녁에 시작된다.

수요일은 나쁜 징조의 날을 뜻하는데, 나쁜 영을 쫓아내고 수요일을 무사하게 보내기 위해 축제를 기념한다. 밤새도록 불을 피우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서 돌아오는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모닥불을 피워놓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노래를 부르며 불을 뛰어 넘는다.

사람들은 피워놓은 모닥불을 뛰어 넘으면서 “너의 타오르는 붉은 색은 나의 것이고, 나의 노란 색 창백함은 너의 것이다.” 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이 날 밤에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소원을 비는데, 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국수 수프가 준비되어 모든 사람이 같이 먹기도 하고, 행인들에게도 견과류와 과일을 나눠준다. 또한 이들은 새해가 되기 전, 마지막 화요일 밤에 ‘어질’ 이라 불리는 과일이 나 견과류를 깨물면서 만사태평을 기원한다.

여전히 살아있는 불의 종교,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이슬람교로의 개종이 강요되고 종교적 박해가 있으면서 이란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인도로 가서 대부분 뭄바이 지역에 정착했다. 19세기에 이르러 ‘파르시’ 라고 불린 인도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부, 교육, 자선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파르시들은 이란에 남아 있던 조로아스터 교도들인 ‘가바르’ 와 새롭

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개 집단과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만이 오늘날까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란에 있는 소수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을 일컬어 ‘가바르’ 라고 하는데, 가바르는 원래 이란 조로아스터교도를 경멸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며, 언어학적으로 ‘이교도’ 라는 뜻의 아랍어 ‘카피르’ 와 관련이 있다.

아랍-이슬람의 정복 후부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오랫동안 아주 낮은 천민 취급을 받고 살았다. 비록 1882년까지 ‘지즈야(인두세)’ 를 바침으로써 어느 정도 관용을 얻기는 했으나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걸옷을 입어야 했으며, 말을 타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이들은 케르만과 야즈드, 테헤란에 몰려 살았으며, 지금도 그곳에 배화신전(拜火神殿)을 보존하고 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던 이란 조로아스터교도 가바르들은 15세기에 인도의 부유한 조로아스터교도들인 파르시파와 접촉하면서 신앙전승에 관한 서신들을 교환했다.

19세기부터 파르시파는 어렵게 살고 있는 이란인 신도들의 형편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협회를 조직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들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란에 레자(1921~1941년)가 즉위한 초기부터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



사진4 ●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 인도 뭄바이의 파르시 가족



사진5 ● 이란 야즈드의 아테슈카데(불의 집) 사원 정문에 조각된 조로아스터교의 상징물

어나기까지 가바르들은 어느 정도의 종교적 관용을 누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인들'을 의미하는 파르시는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종교박해를 피해 인도로 건너간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의 후손들이다. 이란에 있던 조로아스터교도의 일부가 8세기 경에 신흥 이슬람교도에 쫓겨서 인도 구자라트 주(州) 해안지방으로 이주하였다.

그 중심지는 수라트 남쪽 교외의 나우살리시(市)로 이곳에는 당시의 사원이 아직도 남아 있다. 17세기에 이르러 수라트에 동인도회사(東印度會社)의 상관(商館)이 설치되자 많은 파르시들은 상업이나 무역업에 종사

하게 되었고, 18세기에 영국 동인도회사의 상관이 몸바이로 옮겨지게 되자 그들의 대다수도 몸바이로 옮겨갔다. 19세기에 이르러 그들은 몸바이를 중심으로 상업공업을 크게 일으켜 몸바이는 인도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지적이고 진취적으로 알려져 유럽의 근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산업을 일으켜 인도 경제계에서 커다란 세력을 이루었다.

인도의 파르시인들은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사업수완을 기반으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도의 유명한 파르시로는 인도 재계의 최대 그룹 타타의 오너인 라탄 타타(Tata) 회장, 주빈 메타(Mehta) 전 뉴욕 필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인도 핵의 아버지 호미 바바(Bhabha) 박사 등이 있다. ☺